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 연구: 학자 및 연구자 대상 PEST-SWOT-AHP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호*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연구교수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Focusing on PEST-SWOT-AHP Analysis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Sun-Ho Park*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etaverse,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안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키워드 : 플랫폼 산업 정책, 플랫폼 산업 방향성, ICT 산업과 정책, 미디어 경영과 정책, PEST-SWOT-AHP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developmental policy direction for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moving away from the regulatory-centered discussions that have predominated thus far. To offer policy directions, the PEST-SWOT-AHP analysis model was employed. The study first categorizes the issues of the domestic online platform industry in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which are then further categorized into 16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se factors was measured, leading to the derivation of four final strategi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policy directions should prioritize addressing weaknesses, with 'improving regulations that hinder innovation' be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across all categories, while technological factors were consistently rated highly in importance apart from this. Accordingly,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domestic online platform industry suggests avoiding excessive regulation and instead emphasizing policy support centered arou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macroscopic developmental direction for online platform policies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in existing academic research, and it provides professional and objective indicators through consensus among scholars and researcher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research will continue to propose detailed policy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based on a macroscopic perspective.

Key Words : Platform industry policy, Platform industry direction, ICT industry and policy, Media management and policy, PEST-SWOT-AHP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2 New Scholar Research Support Project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sponsored by 'Hyundai Home Shopping'.

*Corresponding Author : Sun-ho Park(Parksunho@sogang.ac.kr)

Received February 27, 2024

Revised May 2, 2024

Accepted May 20, 2024

Published May 28, 2024

1. 서론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본격화 단계에 이르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사용자 집합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1,2]. 특히, 전자 상거래,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미디어, 디지털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 생활에서 필수적인 '공공 유틸리티(public utilities)'의 기능을 하고 있다[3].

하지만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부정적 사례들로 인한 여러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왜곡과 공정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 보호 침해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4]. 이러한 문제의 소지는 규제기관과 산업 생태계 내의 이해관계자 간에서 여러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플랫폼 산업은 기존 산업과는 달리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진다[5]. 플랫폼 산업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거래당사자 중심의 기존 법체계로는 문제해결이 힘들다는 논의로 이어졌고, 이러한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시도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여러 규제기관에 의해 급속히 추진되던 규제입법시도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충분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4,6] 인해 수년 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에 의한 자율 규제방식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기존에 논의되던 강화된 플랫폼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처럼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매우 불명확하며, 이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평화에 관한 법률안'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논의는 수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4], 정권이 교체된 지금의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관련한 정책 이슈가 규제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그 동안의 학술연구는 주로 규제를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으며, 산업의 진흥의 관점에서의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규제와 몇몇 특정 이슈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만 진행되어왔으나, 거시적 관점의 학술적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 정책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인 만큼 거시적 시각으로 요인을 세분화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해 먼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인 측면에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류하였다. 나아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ICT정책 분야의 학자 및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의사결정의 실무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가지의 정책전략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2.1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 연구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한 연구는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고, 규제정책이 이슈화된 2021~2022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외사례나 현황 분석을 통해 쟁점을 고찰하는 방식과 이론적인 논의를 통한 분석 방식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해외사례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경쟁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모준성과 고수윤(2021)은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2021년 6월에 제안한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A Stronger

Online Economy)' 패키지 법률안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는 변화하는 경쟁법 패러다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면서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7]. 권용수(2021)는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공정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정화법에 대해서 규율대상, 중개사업자에 대한 규제 타당성,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고려를 논의하였다[8]. 홍명수(2022)의 연구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의 제9차, 제10차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의 성장환경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GWB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규제체계를 분석하여, 국내의 플랫폼 규제 적용가능성을 시사 하였다[9].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문제제기의 쟁점으로 적용사업자의 범위, 사적 거래에 대한 공적 개입,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을 들고 있으며[6], 국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 없이, 해외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규제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근본적인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4].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오(2022)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통신 산업과 비교하여 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이론적 체계를 비교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화를 통해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양방향적 대응을 제안하였다[10]. 박민수와 정필문(2022)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의 전제인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피드백효과, 플랫폼생태계 구축 등 경제학적 쟁점을 기존의 학술적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 결론보다는 사후적인 사례별 규제를 제안하였다[11].

국내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관련된 학술 연구는 주로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적 육성과 발전을 방향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온라인 플랫폼의 산업적 진흥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는 학술연구보다는 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에서의 정책연구로 수행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유형, 시장 현황, 정책이슈, 국내외 규제 동향을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국내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101명의 경제·경영, 법·제도 분야 등의 전문가로부터 플랫폼 시장 현황,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정책 이슈, 정책의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플랫폼 시장의 SWOT분석과 플랫폼 정책 이슈를 정량적 결과로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증거에 기반한 지원 정책 수립과 기술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12].

이와 같이 국내에서 수행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한 연구는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산업의 발전방향성을 제안하는 학술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2 정책 방향성 제언 연구

국가의 정책이나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있으며, 정책 또는 전략의 주요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연구에서는 인식조사와 AHP를 통해 상·하위 정책 요인 간 정합성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공계 인력복지지원과 핵심 연구 인력양성, 수요 지향적인 인재 양성정책 등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13]. 국내 소셜커머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SWOT과 AHP를 연계한 분석을 활용하였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산업에 대한 정성적 전략분석을 수행하고, 각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통해 측정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6]. 성욱준(2016)은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의 요소를 기술인프라 수준, 법·제도 수준, 인식문화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하위 12개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대부분의 AHP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만을 측정했던 것과는 달리 중요도와 긴급성을 구분하여 모두 측정

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15].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설계하여 도출한 연구에서도 AHP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측정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을 법·제도 개선,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인식개선, 사업지원 등 6가지 상위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하위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정부 관계자, 법조계, 산업계,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원비교 설문을 진행하였다. 도출 결과 당시 논의되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했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 하였다[16].

분석적 계층화 과정을 활용한 연구는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17], 다른 방법론과의 결합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고 [14],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PEST-SWOT-AHP

PEST 분석은 거시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평가하는 모델로, 전략적 목적을 가진 분야를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으로 분류하여 객관화하는 방법이다[18,19]. PEST-SWOT는 PEST 분류 기준을 다시 내외부 환경 분석 기준인 SWOT와 연계하는 것으로, PEST요인을 SWOT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고, 다시 긍정·부정 요인으로 나눔으로써, 환경을 보다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이다[12].

SWOT 분석은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를 대응하여, 네 가지 유형의 전략을 도출하여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21]. 하지만 SWOT 분석만으로 도출된 전략은 각 요인들의 효율성과 중요도,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22]. SWOT-AHP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WOT요인에 정량적 우선순위를 측정할 수 있는 AHP 분석을 연계한 방법이다[23].

AHP분석은 다수의 대안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대안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1970년 초 Thomas L. Saaty가 처음으로 제안한 분석틀이다. AHP는 대안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24,25].

PEST-SWOT-AHP 분석은 PEST와 SWOT, AHP분석을 연계하여 전략적 대안을 제안하는 방법론으로 국내 ICT 정책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국내의 핵융합 연구개발 사례에 PEST-SWOT-AHP를 적용하여 핵융합 연구개발에 관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도출하였으며[26], 이종만과 박재민(2013)은 국내 IT창업 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PEST-SWOT-AHP로 분석하여, IT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과 모형을 제시하였다[27]. 창의적 SW인재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연구에서도 국내 SW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PEST-SWOT를 통해 환경요인을 분류하였고, AHP로 분류된 정책 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20].

3.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가지 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를 PEST기준으로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 요인은 2021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의 '온라인 플랫폼 이슈 SWOT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슈를 SWOT기준으로 총 32개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요인을 다시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2단계는 PEST기준으로 분류한 32가지 정책 요인을 각각의 SWOT기준별로 중요도가 높은 요인을 선정하여, 내부이면서 긍정적 요인은 '강점', 내부이면서 부정적 요인은 '약점', 외부이면서 긍정적 요인은 '기회', 외부이면서 부정적 요인은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4가지의 SWOT요인별로 각각 4가지의 PEST요인으로 분류하여 총 16가지의 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Table 2, 3과 같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정책 이슈에 대한 PEST-SWOT 계층화분류표를 작성하였다.

3단계는 분류한 계층화표를 기준으로 AHP분석을 위해서 ICT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은 각각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선택하는 방식의 이원비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28]. 조사대상 전문가의 구성은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방향성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 또는 연구자로 한정하였다. 전문가의 관련분야의 전문성의 기준은 ICT 또는 정책분야의 박사학위 취득과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판단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6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였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된 온라인양식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중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평균이 0.2 이하인 샘플만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Table 1.과 같이 총 21명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다.

Table 1. Survey sample list

No.	Expert	Degree	Career	Affiliation
1	Ji**	Ph.D.	25	Research Institute
2	Moon**	Ph.D.	20	Research Institute
3	Yang**	Ph.D.	17	University
4	Ahn**	Ph.D.	17	University
5	Rim**	Ph.D.	23	University
6	Kim**	Ph.D.	18	University
7	Lee**	Ph.D.	14	Research Institute
8	Kim**	Ph.D.	30	Research Institute
9	Cha**	Ph.D.	20	University
10	Kang**	Ph.D.	15	Research Institute
11	Kim**	Ph.D.	20	University
12	Nam**	Ph.D.	11	University
13	Park**	Ph.D.	10	Research Institute
14	Chun**	Ph.D.	15	University
15	Cho**	Ph.D.	23	University
16	Park**	Ph.D.	27	University
17	Hwang**	Ph.D.	17	University
18	Song**	Ph.D.	26	University
19	Lee**	Ph.D.	8	University
20	Lee**	Ph.D.	8	University
21	Kim**	Ph.D.	10	University

4단계는 이원비교 설문으로 취합된 데이터를 Excel 버전 2401을 활용하여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총 3가지로 먼저 상위요인인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 다음으로 각 상위요인에 속한 4가지 정책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하위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 마지막으로 16가지 하위요인에 상위요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복합가중치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5단계는 SWOT 분류 요인 중 4단계의 AHP분석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정책요인을 기준으로, SWOT Mix 전략을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PEST-SWOT 연계 요인 도출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방향성 요인을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요인을 내부외부 요인과 긍정·부정요인으로 구분하여 SWOT분석을 하여 Table 2, 3과 같이 16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Table 2. Derivation of PEST-SWOT internal factors

Internal	Strength(+)	Weakness(-)
Political	(SP)Regulations for a fair market	(WP)Regulations impeding innovation
Economic	(SE)Competitive domestic platforms	(WE)limitations in domestic market size
Social	(SS)Proficient digital users	(WS)Increasing negative perceptions
Technological	(ST)Competitive ICT infra and HW technology	(WT)Complementing the lack of core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human resources

먼저 내부요인에서 정책적 요인으로는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수립 및 추진 등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SP)이 있으나, 반면에 이러한 규제가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 서비스 및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측면(WP)도 있다. 경제적 요인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이 대부분의 국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SE)는 강점이 있다. 다만 국내시장의 규모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한다면, 시장 확대 및 성장의 제한이 있다(WE)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요인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성장으로 기술수용도가 높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SS)는 점이다. 반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기존 서비스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상황의 발생과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WS)는 문제가 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풍부한 ICT 인프라와 H/W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ST) 강점이 있으나, 핵심 기술 경쟁력 부족과 인력부족 (WT)의 약점이 있다.

Table 3. Derivation of PEST-SWOT external factors

External	Opportunity(+)	Threat(-)
Political	(OP)Global regulations on Big Tech	(TP)Strengthen regulation in global market
Economic	(OE)Expansion of domestic platforms into overseas markets	(TE)Expansion of Big Tech's influence
Social	(OS)Increase and expansion of overseas users	(TS)Increasing exclusive awareness of global users
Technological	(OT)Emergence of new technology market	(TT)Increasing dependence of core technologies on overseas

다음으로 외부요인에서 정책적 요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OP)는 점과 전 세계적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의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진출 또한 위협할 수 있는(TP)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경제적 요인은 국내 시장에서 기반을 다진 자국 플랫폼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OE)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TE)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용자의 배타적 인식 확산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OS)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해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배타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내서비스의 해외진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TS)는 점이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와 블록체인, AI, 메타버스와 같은 새롭게 성장하는 ICT 기술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 등장할 수 있다(OT)는 기회요인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모바일OS, AI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증가하는(TT) 위협요인이 있다.

4.2 PEST-SWOT-AHP 분석 결과

PEST-SWOT 기준으로 분류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 요인을 1:1 쌍대비교를 통해 각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Table 4와 같이 도출하였

다. 상위요인인 SWOT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약점(W)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책방향의 중요도가 .30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강점(S)요인 .277, 기회(O)요인 .264 순이었으며, 위협(T)요인이 .156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은 내부적으로는 약점 요인을 보완하고, 외부적으로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Local weights of PEST-SWOT groups

Group	Weight	Rank	Sub Group	Weight	Rank
S	.277	2	SP	.232	3
			SE	.179	4
			SS	.248	2
			ST	.341	1
CR = 0.003					
W	.303	1	WP	.360	1
			WE	.204	3
			WS	.139	4
			WT	.297	2
CR = 0.007					
O	.264	3	OP	.158	4
			OE	.256	2
			OS	.190	3
			OT	.396	1
CR = 0.005					
T	.156	4	TP	.238	3
			TE	.250	2
			TS	.133	4
			TT	.379	1
CR = 0.012					

CR = 0.009

SWOT요인의 각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먼저 내부요인 중 강점(S) 요인에서는 ‘국내의 고도화된 ICT 인프라와 H/W 기술 경쟁력을 활용’(ST)하는 방향인 기술적 요인이 .341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이용자 증가’(SS) .248, ‘시장 공정성 확보’(SP) .232 순이었으며, ‘자국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SE)하는 경제적 요인이 .179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약점(W) 요인에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개선 방향’(WP)인 정책적 요인이 .36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어서 ‘플랫폼 핵심 기술 경쟁력과 인재 부족’(WT)을 보완하는 기술적 요인이 .297로 높게 평가되었고,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 극복’(WE) .204, ‘플랫폼 부정인식 증가 극복’(WS) .139 순이었다.

외부요인 중 기회(S) 요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 시장 등장 기회 활용'(OT) .39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이어서 '국내 플랫폼 해외진출 증가 기회 활용'(OE) .256, '국외 이용자 확대'(OS) .190 순이었고, '빅테크를 겨냥한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OP) .158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위협(T) 요인에서는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AI 등 핵심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 극복'이 .379로 가장 중요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영향력 증대 위협 극복' .250,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움직임 극복' .238 순이었고, '해외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이용자의 배타적 인식 확산 극복'이 .133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Table 5. Global weights of PEST-SWOT sub groups

Sub Group	Weight	Rank	Sub Group	Weight	Rank
SP	.064	7	OP	.042	13
SE	.050	11	OE	.068	6
SS	.069	5	OS	.050	10
ST	.094	3	OT	.105	2
Sub Group	Weight	Rank	Sub Group	Weight	Rank
WP	.109	1	TP	.037	15
WE	.062	8	TE	.039	14
WS	.042	12	TS	.021	16
WT	.090	4	TT	.059	9

16개의 하위요인에 상위요인의 가중치를 곱한 복합가중치를 Table 5.와 같이 산출하였다. 전체 복합가중치 산출결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WP)이 .109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는 '신규기술 시장 등장 기회 활용'(OT) .105, 'ICT 인프라와 H/W 경쟁력 활용'(ST) .094, '핵심기술 경쟁력 부족 보완'(WT) .090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술 경쟁력 활용 및 보완과 관련한 정책방향성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방향성은 규제 개선으로 나타났다.

4.3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전략 도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 제안을 위해 SWOT 분석을 기준으로 각 상위요인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하위 요인을 선정하여, SO, WO, ST, WT 전략을 Fig. 1과 Table 6과 같이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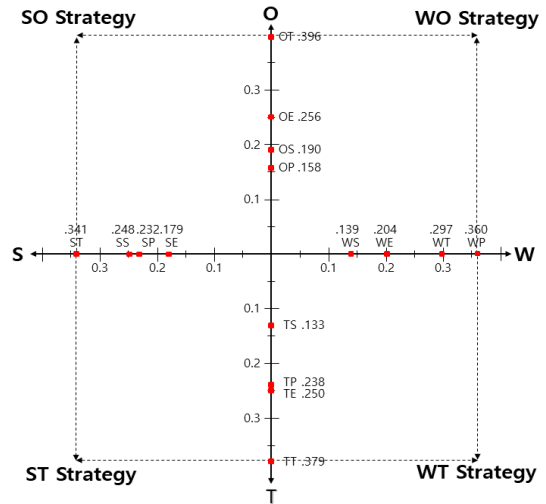


Fig. 1. Policy direction strategies for online platform

Table 6. Policy direction strategies for online platform

		Internal	
		S	W
External	O	ST .341	WP .360
	OT .396	Targeting new markets using infra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Leading new markets by improving regulations
		SO Strategy	WO Strategy
		ST Strategy	WT Strategy
External	T	TT .379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using infra and human resources competitiveness	Improving co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y policy support

먼저 강점을 이용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SO전략은 'ICT 인프라 및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신규시장 공략'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CT 인프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도입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시장 공략을 제안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WO전략은 '규제를 지양하여 신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신규 기술/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을 제안하는 전략이다. 강점을 이용하고 위협요인을 극복하는ST전략은 'ICT 인프라 경쟁력을 활용한 핵심기술 육성' 전략이다. 국내의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기술인 AI, 클라우드, OS 등의 자체적 성장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육성을 제안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WT전략은 '정책적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이다. AI,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제안하는 전략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주요 쟁점을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인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요인을 기준으로 요인 간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전략적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정책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 시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에서의 거시적 기본기조는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주요 정책요인 중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향은 약점요인을 극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약점 요인 중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은 전체 16가지의 세부요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규제 중심으로만 치우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도 실증적 근거 없이, 국가 간 산업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당위적이고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4,6,7,8,11].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지원 정책은 기술개발 중심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각각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의 하위 요인 중에서 기술적 측면의 요인은 '규제개선'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결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중심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강화·보완·극복이 핵심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위

해서 경쟁력 있는 ICT인프라와 고급인력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며, 나아가 클라우드, OS 등 이미 국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 분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리하면 결국 신규 산업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양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외 거대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산업시장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플랫폼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물리적 경계가 없는 글로벌 경쟁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성장의 저해와 타 국가 플랫폼 서비스와의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중심의 정책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산업의 진흥을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기술 개발 및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ICT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구심점이자, 이러한 기술을 통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화 수단이다. 근본이 되는 기술개발 없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중심의 논의는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인 의견 대립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 산업의 성장에 불확실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의미는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되었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정책의 쟁점을 떠나,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 점이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을 줄이고, 전문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검증된 학자와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 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서비스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정리하여,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

랫폼 산업의 정책을 산업의 시각에서만 분류하여,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배제되었다.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가진 환경과 특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정책 전략을 분석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이용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요한 정책 이슈인 만큼 이용자의 권익 보호의 시각을 고려한 연구도 이어졌으면 한다.

REFERENCES

- [1] J. W. Kim., S. P. Yoon. & J. H. Lim. (2023). Digital Platforms Self-Regulation: Its Significance and Perspective. *Yonsei Law Journal*, 43(43), 113-150. DOI : 10.33606/YLA.43.5
- [2] I. S. Chung. (2023). *Domination and Distortion of Digital Platforms*. Paju: Hyungseul.
- [3] V. Bagnoli. (2020). Digital platforms as public utilities. *IIC-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51, 903-905. DOI : 10.1007/s40319-020-00975-2
- [4] S. M. Lee. (2022).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Korea: Status Quo and Legal Issues.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15(1), 98-122. DOI : 10.22732/CELP.2022.15.1.98
- [5] D. Hanley. (2020). A Topology of Multisided Digital Platforms. *Connecticut Public Interest Law Journal*, 19(2), 275-278.
- [6] H. K. Kim. (2021). A critical review of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bill: Focusing on 「the Bill on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94, 137-185.
- [7] J. S. Mo. & S. Y. Go. (2021).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 of Online Platforms in United States: Focusing on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in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HUFs Law Review*, 45(4), 1-36. DOI : 10.17257/hufslr.2021.45.4.1
- [8] Y. S. Kwon. (2021).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40(2), 329-366. DOI : 10.21188/CLR.40..2.7
- [9] M. S. Hong. (2022). Consideration on the revision of the German Anti-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improve platform regulation: Focusing on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Dong-A Law Review*, 94(94), 253-285. DOI : 10.31839/DALR.2022.02.94.253
- [10] T. O. Kim. (2022).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s. *Inha Law Review*, 25(1), 1-10. DOI : 10.22789/IHLR.2022.03.25.1.1
- [11] M. S. Park. & F. M. Jeong. (2022). Do Economics Justify Ex-ant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A Literature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30(2), 1-47. DOI : 10.36354/KJIO.30.2.1
- [12] Y. R. Park., G. Y. Choi., E. M. Lee., G. S. Lee., C. S. Oh., G. N. Son., S. H. Kim., S. M. Lee. & N. S. H. Choi. (2021). *A Study on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 Ecosystem*. Jincheon: KISDI.
- [13] K. K. Kim., K. J. Lee. & J. K. Kim. (2011). A Study on Policy Compatability and Priority on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Development Policy.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5(3), 201-226. DOI : 10.18397/kcgr.2011.15.3.201
- [14] B. D. Choe. & J. M. Kim. (2014). Strategies to Achieve Sustainable Success for Social Commerce using SWOT-AH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25(4), 401-415. DOI : 10.21131/kopoms.25.4.201411.401
- [15] W. J. Sung.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ig Data Policy in the Public Sector.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5(2), 125-149.
- [16] H. S. Jung., S. H. Park. & D. W. Hyun. (2021). A Priority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Task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Big data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of policy priority using AHP.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5(1), 283-313. DOI : 10.22876/kab.2021.35.1.008
- [17] M. I. Choi., S. A. Kim. & M. E. Choi. (2013).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Decision Elements in TV News Programs Selection Process.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1(4), 7-46. UCI : G704-001893.2013.11.4.001
- [18] G. Lao. & S. Jiang. (2009). Risk Analysis of

- Third-Party Online Payment Based on PEST Model,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and Service Science*. (pp. 1-5). Beijing: IEEE. DOI: 10.1109/ICMSS.2009.5302516
- [19] T. Sammut-Bonnici. & D. Galea. (2015). *PEST analysis*, Wiley Encyclopedia of Management. DOI: 10.1002/97811118785317.weom120113
- [20] J. M. Lee. & M. H. Rim. (2013). Derivation of Creative SW HRD Polic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0), 95-102. UCI : G704-002010.2013.11.10.003
- [21] S. S. Lee., B. H. Choi. & B. G. Lim. (2012). A Strategy Planning for Korean Medical Tourism Using A'WOT analysis. *Journal of Korean Medicine*, 33(3), 10-19. UCI : G704-000561.2012.33.3.012
- [22] M. Kajanus, J. Kangas. & M. Kurttila. (2004). The use of value focused thinking and the A'WOT hybrid method in tourism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25(4), 499-506. DOI : 10.1016/S0261-5177(03)00120-1
- [23] M. Kurttila., M. Pesonen., J. Kangas. & M. Kanjanus. (2000). Utiliz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n SWOT analysis: a hybrid method and its application to a forest-certification case. *Forest Policy and Economics*, 1(1), 41-52. DOI : 10.1016/S1389-9341(99)00004-0
- [24] J. H. Min. (2015). *Smart Management Science*. Paju : Life & Power Press.
- [25] O. J. Kwon. (2018).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ology: Theory and Application*. Seoul: Bookshill.
- [26] H. S. Chang., W. J. Choi. & H. S. Tho. (2012).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Applying PEST-SWOT-AHP: A Case Study of Fusion R&D.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5(4), 766-782. UCI : G704-001043.2012.15.4.007
- [27] J. M. Lee. & J. M. Park. (2013). Global Revitalization Model for Smart IT Venture Ecosystem Using AHP Model.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5), 73-81.
- [28] K. W. Song. & Y. Lee. (2013). Re-scaling for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AHP Method.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1-288.

박 선 호(Sun-Ho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정치학사)
- 2016년 8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20년 8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22년 9월~현재 :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관심분야 : ICT정책, 플랫폼, AR/VR, 메타버스
- E-Mail : parksunho@sogang.ac.kr